

'이태원 인파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들 내주 보석 판가름

前서울청 정보부장·용산서 정보과장 재판부 "구속 만기 임박...신중히 판단"

이태원 헬러윈 축제를 앞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날지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들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형사재판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거의 임박한 점도 보석 근거로 제시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경찰관 정보수집 처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과장은 "보석이 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매일 면회를 했다. 저도 어린 자녀가 있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경찰 측은 보석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병합된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부장 등의 구속 만기가 이달 말까지인 점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오는) 30일로 보름 정도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주 정도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구속 만기로부터 7~10일 남짓 먼저 석방되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여부는 좀 더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다음주 중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הללו원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헬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

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참사 이틀 전 참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대비를 당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은 지난달 22일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과장이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없었던 걸로 하자고 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참사 당시 부실대응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나 유가족들이 반발



최이슬기자



정의연, 1600차 수요시위

검찰, 정유정 구속기한 연장...21일까지 기소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투입 조사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1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자로 만료 예정이던 정유정의 구속 기한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구속 기한은 최대 30일이다.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수

사를 마무리하고 정유정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정유정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강력범죄수사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유정의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을 살해한 강호순(27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문 안 열면 죽여" 이웃집 여성 협박한 50대

광주 남부경찰서 구속영장 신청...경찰관 때리기도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웃집 여성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20분께 술에 취해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사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형사 2명을 밀치고 난동을 피운 혐의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전과가 1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